

“왜곡된 연구결과 신뢰성 외면 당한다”

얼마전 모 바이오벤처기업 대표가 증권사의 전 펀드매니저와 짜고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이익금을 챙기다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때 바이오업계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가 어디고 구속된 대표가 누군지 궁금해 하며 일부는 내게 묻기도 했다.

물론 당시 나는 직접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후배로부터 이 회사가 어디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상세히 알고 있던 차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롭게 느낀 것은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눈 많은 바이오업계 사람들이 한결같이 “언젠가 이런 일이 한번 크게 터질 것”이라는 자조적인 말을 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우려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 업체가 ‘진짜’ 바이오 기업인지 ‘가짜’ 인지는 논외의 문제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들려오는 우울한 소식이 그렇지 않아도 지칠대로 지친 바이오업계에 도움이 될리는 만무하다. 최근 한국과학재단 생물학정보센터에서 학계와 산업계의 바이오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 새해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오업계의 어려움이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다.

‘바이오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1%가 예산 및 연구비 부족을 들었고, 다음으로 23%가 바이오기술의 산업화 전략 부족을 지목했다. 이에 비해 기술력과 인프라, 인력부족 등을 지적한 응답자는 모두 합해 20% 남짓에 그쳤다.

또한 ‘올해 바이오산업정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 무엇이나’는 질문에도 역시 절반 가까운 46%가 ‘지속적인 정부투자’를 선택함으로써 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역시 자금난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처럼 업계가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 바이오업계에 큰 반전(?)은 없어 보인다. 아니 오히려 일반인들의 환상(?)을 자극하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해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을 중심으로 쟁점이 됐던 ‘바이오의 실제’ 논란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고, 바이오산업의 미래가치를 주장하는 기업과 매년 풍성한 열매가 열리길 바라는 투자기관간 시각차가 좁혀질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바이오업계가 올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몇가지 당부하고 싶은게 있다. 바이오기업들이 연구결과를 너무 ‘뽕’(?)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 문제는 나를 비롯한 기자들이 뽕조한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가끔은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때도 있다. 몇몇 기업을 예로 든다면 서로 얼굴만 붉힐 것 같아 적시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는 사람을 알 것이다. 이 같은 모습은 오히려 바이오 업계의 불확실성을 더 부각시키고 신뢰성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또 한가지는 바이오벤처협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 바이오산업 관련 모 협회의 경우 인터넷 시대에 아직도 한참 지난 신약개발 소식을 몇페이지 안되는 페이지에 ‘새소식’이라며 전하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협회가 할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업계에서 바이오벤처기업협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고운 것 만은 아니다.

어려운 시정일수록 협회차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해에는 협회가 바이오벤처기업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고, 이를 정부와 대기업, 언론 등에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때인 듯 싶다.



김길원 기자

연합뉴스 BT.의학 담당